

인쇄역사문화관에는

대한인쇄문화협회가 조성한 인쇄역사문화관에는 고대부터 미래인쇄까지를 총 망라한 인쇄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. 특히 지난 1천년 동안 개발되었던 다양한 활자들이 복원돼 전시되어 있다. 본보에서는 시리즈로 인쇄역사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을 소개한다. <편집자 주>

도

활

자

1



● 도활자란 질그릇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차진 흙에 물을 섞어 잘 찼어 네모꼴로 만들고, 그 위에 글자를 새겨 두껍게 백랍(白蠟)을 칠한 다음 구워서 만든 활자를 말한다. 1041~1048년에 북송의 필승(畢昇)이 처음 만들어 냈다고 한다. 이것이 도활자 또는 교니활자(膠泥活字)라고 불리는 활판의 최초 형태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도활자를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.

● 1911년 6월 1일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궁내부 소유의 규장각 도서와 함께 활자를 인수하였던 인계서를 보면 도활자 가운데 대자 96개, 소자 129개, 도합 225개가 적혀 있다. 이 가운데 현재 200여 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도활자가 있었으며, 이것으로 서적을 인쇄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.

● 최근에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네모꼴의 몸통에 구멍을 뚫어 철자로 꿰어 조판할 수 있도록 만든 도활자가 발견되었는데 현재 상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. 본 문화관에 전시된 도활자는 상주박물관의 협조로 복원한 것이다.